

# “조선 독립 해법 불교의 ‘중도’에서 찾아야”



조선에서 온 붉은 승려  
정찬주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 3천원

광대한 중국대륙을 누비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생을 바쳤지만 해방된 조국은 간첩의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등 마지막까지 불온하게 살다 간 운암 김성숙의 생애를 그린 소설이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얼룩져 있던 20세기 초, 강도 일본에 모든 것을 빼앗긴 조선은 독립을 염원하며 슬픈 역사 속에 잠겨 있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아리랑을 부르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상하이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소설은 조선에서 승려 생활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1923년 26세의 나이로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아나키스트와 민족주의 혁명가로 활동했던 김성숙의 삶의 궤적을 쫓는다.

1969년 4월 12일 오전 10시, 쓸쓸한 그의 죽음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반생은 중국 대륙에서 풍찬노숙하면서 항일투쟁을 했고, 조국에서의 반생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과 투옥의 고초, 말년의 병마 속에

서도 민족자주 노선으로 남북통일을 갈망했던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펼쳐진다.

“1916년 11월 말,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19세의 청년은 땀나뭇하고 요사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는 일을 했다. 지난 봄날 승려가 되겠다고 용문사로 왔지만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주지스님은 여전히 잡말만 시켰다.”

김성숙은 1916년 양평 용문사에서 풍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지만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 승복을 벗는다. 처음 받은 법명은 성암(星巖)이고, 법호는 태허(太虛), 호는 운암(雲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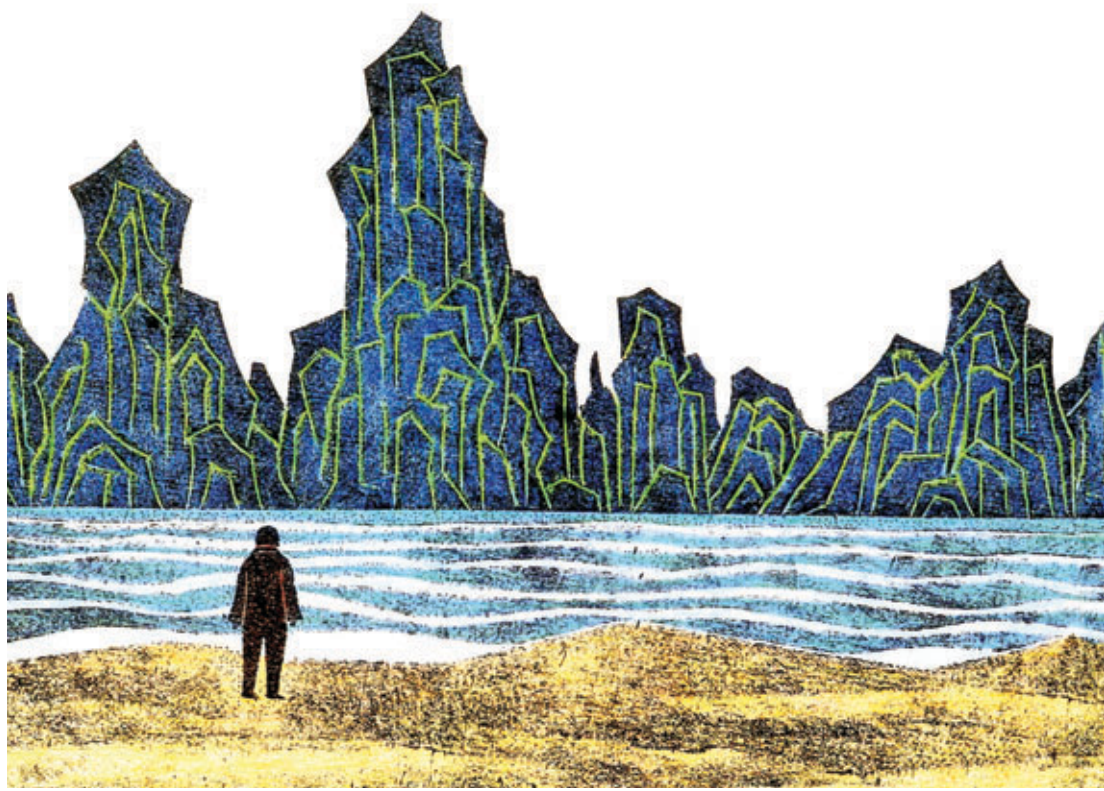
“주지스님, 비구계 계첩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절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절 밖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뒤부터 깊이 고민해왔고 마침내 도달한 생각입니다.”

1916년 김성숙은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집을 떠난다. 봉천으로 가기 위해 원산, 청진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려 했지만 국경수비대의 삼엄한 경계에 막히고, 기회를 엿보던 김성숙은 시절연연에 이끌려 용문사에서 불가에 입문한다. 월조선사의 뜻을 받아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고지독한 고문을 견뎌낸다.

1923년 드디어 베이징으로 건너간 김성숙은 아나키스트로 변신하면서 테러 조직 의열단에 입단한다. 그는 조선의 독립의 해법을 좌파와 우파의 논리를 넘어 불교의 중도(中道)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협동전선의 필연성’을 외치며 잡지 <혁명>을 발행한다.



독립운동가 김성숙의 생애 조명  
반생은 중국에서 풍찬노숙으로 항일  
조국에서 반생은 가난·투옥·병마



2004년 7월 28일 운암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으로 안장됐다.

## 선시로 만나는 선사의 마음

시심시불

해안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190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해안(海眼) 선사는 14세에 불가 들어 17세에 백양사에서 만암 대종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다. 18세 때, ‘7일 용맹정진’에서 학명 선사로부터 은산철벽을 뚫으라는 화두를 받고 생사를 걸고 정진한다. 그리고 7일 때 되는 날, 다생검래로 찾던 길을 찾는다. 1974년 음 3월 9일 새벽, 내소사 서래선림에서 입적하니, 세수 74세 법랍 57년이었다. 생전에 호남제일선객으로 불리었던 해안 선사의 시집으로, 1962년에 나온 첫 책에 신지 못했던 몇 편의 시를 더하여 개정판으로 다시 엮었다. 소박하면서도 투박할 정도로 기교는 배제되어 있지만, 한 편 한 편 마다에는 선사의 변박이는 선기와 자유로운 정신세계, 불교의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다.

수행생활 중에, 혹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소회를 가감 없이 써내려간 글 속에서 선사의 풍격과 대자유인으로서의 자유자재함, 대중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인간미를 만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 모든 이원성 통합하는 생명의 힘...만다라

심연에서 찾은 고향

글·그림 김영옥 | 마그마 펴냄 | 1만5천원



“이번 무의식세계에서 만난 ‘심연에서 찾은 고향’은 어느 때보다 흥미로웠다. 심연 속에서 경험되는 교감을 다양한 색으로, 다양한 표정으로, 다양한 몸짓으로, 다양한 날개 짓으로 생동하게 했다.”

만다라 예술가이자 만다라심리치료전문가인 김영옥 원장(마그마힐링센터)의 6번째 작품명상집이다. 이전의 작품집이 예술가로서의 내면탐색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번 ‘심연에서 찾은 고향’은 김영옥이라는 한 예술가의 마음자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모두의 마음 고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즉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심연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힐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다라 회화다. 동양학자 조용현은 그의 만다라를 ‘궁극적 회화’

라고 평했다. 그의 작품이 생과 사, 선과 악 등의 모든 이원성을 통합하는 초월적 그림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작품 역시 모든 이원성을 통합해 나가는 자기발견의 성취를 보여준다. 그는 이번 명상집의 의미를 ‘만다라를 통해 끊임없이 파고드는 생명의 원천을 만나고 그것이 인류의 젓줄인 모태였음을 깨닫는 것’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심연에서 찾은 고향>은 개인의 삶을 여러 갈래로 분리시키는 모든 이원성을 통합하는 생명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다. 작가가 이번 작업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은 돌의 새김 방법이다. 항상 새길 때 밖에서 안으로 사용하던 칼의 법을 이번 작업에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향했고, 그 활동의 범위가 커져 몸의 움직임도 평소 두 배의 힘으로 자극이 됐다고 한다. 이렇게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심연에서 찾은 고향’에서 대지의 넓은 힘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에너지가 되었고, 그 기운으로 함께 비상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작가는 “언제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잊게 됐다. 그러나 세상과의 소통이 자유로운 생활로 변화버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훌쩍바른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심연에서 찾은 고향’이란 주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다 더 가까이 세상을 향하기 위해 시도한 작업이다. 5회까지는 나와 국가 그리고 민족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한다. 앞으로 주변 생활 속 관계와 세상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고 이번 작품의 이유와 과정을 밝혔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 ~ 10/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우리 모두는 부처다	최태평·최태	평세
5	산사로 가는 즐거움	현종	공감
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7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담애플박스
8	이 말 한마디 뒤엔 이해 세상에 왔노라	김기추	운주사
9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10	선시	석지현	현암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조계종 전장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창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두 (한영종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종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모든 교법을 모아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해설  
신국판 | 양장 | 2도라라 | 348쪽 | 20,000원

문·사·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불교의 개론서이자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관식들의 개요를 보았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주창한 규봉종필(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자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이색을 사용하였다. 정원(淨源: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微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선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本)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양극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경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승한 근거는 이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알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도 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미' (cafe.daum.net/amitapa)  
비율과소통 02)2632-8739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검색

주소: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 (055)974-0033, (055)973-4006  
상당 및 예약: 011-843-9295, 010-2634-2723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